

광산구청 오죽했으면...송정역 대역 열감지 카메라 1대 다시 떼어가

코로나19 확산에 방역장비 구하기 전쟁

다중시설·경찰서·학교 등 설치 잇따르며 물량 턱없이 부족
광주 자치구 보유 13대 불과...남구는 그나마 한 대도 없어
음압텐트 품귀 속 체온계·방진복·마스크 확보 '전전긍긍'

26일 오전 10시 56분 용산발(發) KTX가 광주송정역에 도착한 뒤 승객들이 쏟아져 나오며 역사(驛舍) 출입구에 길게 줄을 섰다. 코로나 19 감염증 의심 환자를 걸러내기 위해 광주송정역 2층 북쪽 출입구 앞에 설치된 열감지화상카메라를 지나가기 위해서다. 하루에만 2만명이 넘는 승객들이 이용하는데도 열감지화상 카메라는 고작 1대에 불과했다.

그나마 광주 광산구가 지원해준 2개의 카메라 중 1대를 떼어가면서 1대로만 출입자의 발열 상태를 점검해야 하는 상황이다.

코로나 19가 무섭게 확산하면서 방역 장비 확보에 비상이 걸렸다. 보건당국은 예산을 확보하고도 열화상감지카메라를 구입하지 못하는가 하면, 자가격리자들에게 제공하는 체온계나 방진복 등도 수요를 따라가지 못해 노심초사하고 있다.

◇돈을 쥐도 못사는 열감지카메라=당장, 출입자들의 발열 상태를 체크하는 열화상감지 카메라의 경우 코로나19가 전국으로 확산하면서 지자체를 비롯, 기업·개인들이 구입 문의가 쇄도하면서 제품이 동이 난 상태다. 대당 300만원부터 최고 1000만원을 쥐야 하는 카메라지만 공항, 기차역, 버스터미널 등 다중시설을 비롯해 경찰서, 백화점, 쇼핑센터, 관공서, 기업, 병원, 학교 등의 설치가 잇따르면서 공급이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광주지방경찰청의 경우 광주청을 제외한 나머지 5개 경찰서는 지난 20일 예산을 받았지만 여태 구입할 수 없어 설치할 못하고 있는 상태다.

자치구도 비슷하다. 남구의 경우 이번 코로나19 사태에 대비하기 위해 5대를 구매하려고 했지만 단 한 대도 확보하지 못

한 상황이다. 다음주에 2대 정도 들여올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지만 나머지 3대는 어떻게 확보할 지 미지수다.

이외 동구 6대(ACC 4대, 보전소 1대, 청사 1대), 서구 2대(종합버스터미널 2대), 북구 2대(광주역1대, 청사1대), 광산 3대(광주송정역 1대, 광주공항 1대, 청사 1대) 등 총 13대가 전부다. 각 자치구는 '심각' 단계로 격상하면서 추가 구매가 절실한 상황이지만 물량을 확보하지 못해 발만 동동 구르고 있다.

열감지카메라 제조사와 유통사 관계자들은 "전 세계적으로 수요가 몰리면서 수입산, 국산 모두 물량이 바닥난 상태"라며 "카메라 주요 부품이 중국산인데, 중국공정들이 문을 닫아 부품 수급조차 어렵다"고 말했다.

◇방진복·체온계·마스크도 품귀=자치구별로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 확보해야 할 체온계·방진복·마스크 등 방역물품도 코로나19가 확산할 경우 공급이 원활하지 않을까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동구의 경우 자가격리자들에게 제공할 체온계 50개, 마스크 1700개, 방진복 200개 등을 확보해놓은 상황이지만 확진자가 추가로 발생하고 밀집접촉자 및 자가격리자가 늘어날 경우 부족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전전긍긍하고 있다.

서구도 체온계 20개·마스크 2000개·방진복 150개를 준비해놓고 있지만 사태 확산 추이를 지켜보면서 대응책 마련에 나선 상황이다.

광주시 북구 마스크 제조업체 ㈜태봉도 24시간 공장을 가동하며 마스크를 하루에 10만장을 생산하고 있지만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공장 관계자는 "현재로는 의료용 마스크인 N95와 KF94는 제 때 납품이 어려운 실정"이라고 말했다.

◇음압어텐트는 아예 없어=광주지역



26일 오전 용산발 KTX열차를 타고 광주송정역에 도착한 승객들이 열감지 화상 카메라 측정을 받기 위해 줄을 서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26일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광주시 북구청 본관 현관입구에서 열감지 화상 카메라가 설치돼 출입자의 체온을 측정하고 있다. <광주 북구청 제공>

선별진료소는 모두 11곳으로 '음압어텐트'를 갖춘 데는 기독교병원·서광병원·조선대병원 등 3곳에 불과하다. 전남대병원은 '음압컨테이너'를 보유하고 있다.

선별진료소 근무자와 방문자들의 바이러스 감염 위험을 낮출 수 있고 확진자가 잇따를 경우 비상진료실로도 활용할 수 있지만 5개 구는 아예 확보하지 못한 상태다.

한 동에 2500만~3000만원이나 되는 고

가로 구입 예산 자체가 없는데다, 수요가 급증하면서 공급이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음압어텐트 제조업체 관계자는 "하루 2개 정도 생산할 수 있지만 매일 5개 정도 제작 의뢰가 들어와 물량을 소화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사업가 납치 살해' 국제PJ파 부두목 9개월 도피행각 어떻게?

서울~아산 CCTV 7113대 피해가 다른 조력자 추정...아들 역할 주목

살인 혐의로 지명수배됐던 국제PJ파 부두목 조규석이 범행 9개월만인 지난 25일 아산사에서 붙잡히면서 도주 경로와 은신처 등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전국 공항과 철도·지하철역, 횡단보도, 고속도로 휴게소, 아파트·상가 밀집 지역 등은 물론 골목길까지 촘촘히 설치된 폐쇄회로(CC)TV망을 어떻게 9개월 동안 피해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도주 경로, 조력자 등에 대한 수사가 집중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당장, 경찰은 조씨가 경찰의 수사망을 피해 도주할 수 있었는지, 어떠한 이동 경로로 검거장소인 아산까지 이동했는지 추궁할 계획이다.

조씨가 검거 전 마지막으로 모습을 보인 서울 강남구 논현동부터 충남 아산시까지 직선거리만 약 80km.

강남구에 설치된 CCTV만 5561개다. 아산시에 1552개 설치됐다. 조씨가 서울에서 아산까지 이동하는

동안 평균 12.4m 마다 설치된 총 7113개의 CCTV를 피해야 한다는 얘기다.

이 때문에 경찰 안팎에서는 조씨 검거 과정에서 CCTV 외에 조력자가 있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조씨는 지난 2006년 '광주 건설사주 납치사건' 당시 휴대전화 수신타를 바꿔가며 5개월간 도피행각을 벌이다가 검거된 바 있다. 일각에서는 조씨의 아들이 도주행각에 역할을 했을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조씨가 붙잡힌 충남 아산의 오피스텔이 아들 친구의 명의로 알려진 상태인데다, 조씨가 범행 3일 뒤인 지난해 5월 24일 '광주에서 조사를 받게 해 주면 자수하겠다'고 아들을 통해 연락을 했다는 점도 이같은 해석이 나오는 대목이다.

경찰은 검거 당시 오피스텔 안에서 확보한 휴대전화 2대를 통해 9개월 간의 도피 생활을 추적중이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지하철·기차 성범죄자 10명 중 6명은 범죄 반복

지하철이나 기차에서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 10명 중 6명은 다시 지하철 또는 기차에서 성범죄를 저지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스마트폰 등 디지털 기기의 보급이 확대되면서 카메라 등을 이용해 피해자를 불법적으로 촬영하는 범죄도 급증한 것으로 조사됐다.

26일 법무부가 공개한 '2020 성범죄백서'에 따르면 성범죄 재범자(2901명)의 36.5%(1058명)는 같은 장소에서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지하철이나 기차에서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다시 지하철 또는 기차에서 성범죄를 저지른 비율이 62.5%로 가장 높았고 목욕탕·찜질방·사우나(60.9%), 버스(53.1%), 공중화장실(44.8%), 범죄자의 주거지(37.2%) 등에서도 같은 범죄를 반복해 저지른 비율이 높았다.

또 불법촬영범죄로 처벌받은 범죄자들

의 재범률도 높았다.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로 처벌받은 뒤 동일 범죄를 저지르는 비율은 75.0%로 성범죄 유형 중 가장 높았다.

강제추행(70.3%), 공중밀집장소 추행(61.4%)의 동일 범죄 재범률도 높았다.

카메라 등 이용 촬영 범죄는 2013년 412건에서 2018년 2388건으로 5.8배 급증했고 범죄 연령도 30대(39.0%), 20대(27.0%) 등 20~30대가 66%를 차지했다. 성범죄 재범 비율이 높은 시간대는 새벽 3~6시(28.1%)가 가장 많았다.

법무부는 이런 통계를 감안하면 성범죄자의 정보를 등록해 공개·고지하는 '신상정보등록제도'가 성범죄 예방에 효과적인 수단인 것 같다고 분석했다. 누적 대상자는 지난해말 기준 8만 2647명으로, 올해 안에 10만 명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했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해물왕잠봉 주꾸미 소송' 많이 넣었다고 요리사 해고...법원은 "무효"

임금 4000여만원 지급 판결

주방 요리사에게 음식 재료를 가져쓰라고 했는데도, 평소보다 많은 주꾸미를 해물왕잠봉에 넣었다며 해고한 것은 무효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광주지법 민사 13부(부장판사 김성홍)는 요리사가 중국집 주인을 상대로 낸 해고무효확인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하고

"요리사에게 해고 때부터 복직 때까지 받을 수 있었던 임금 40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요리사 A씨는 지난 2018년 11월부터 중국집 주방 요리사로 고용돼 근무하다가 같은 해 12월 2일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해고통보를 받았다. "해물왕잠봉에 주꾸미 7마리가 나왔다, 내일부터 나오지 마라"는 내용으로, 전날 "해물 재료가 더

많아졌다"며 재료를 가져쓰라는 사용자 지시를 어겼다는 취지였다.

A씨는 '식자재 사용에 대한 업무 지시를 어긴 적이 없고 잠봉에 주꾸미를 넣을 때 정해진 수를 세어서 넣기 때문에 어차피 한 개 정도가 떨어 들어갈 수 있어도 지시를 어긴 게 아니다'며 부당 해고를 주장하며 전남지방노동위원회(지노위)에 구제신청을 했고 지노위는 그대로 인용했다.

중국집 주인이 신청한 재심도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에서 기각됐다.

중노위는 해고사유의 정당성이 결여됐고 해고사유, 시기를 구체적으로 명시해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는 절차상 하자도 있다고 판단했다.

A씨는 복직한 뒤 사용자측에 미지급 임금을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소송을 제기했고 재판부는 주방 요리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 승소 판결했다. 사용자측은 변론에 나서지 않았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이웃과 말다툼하다 자신 도우려한 주민에게 되레 폭력 행사



○...이웃 주민과 말다툼하다 자신을 도우려한 주민에게 되레 폭력을 휘두른 50대 남성이 경찰서행.

○...26일 광주서부경찰에 따르면 A(51·광주시 서구 금호동)씨는 지난 25일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를 마친 뒤 아파트 입구에서 주민들과 이야기를 나누다

"왜 입구에서 시끄럽게 떠드냐"는 B씨와 다툼을 벌이던 중 말리면서 자신을 도우려한 주민 C(41)씨에게 주먹을 휘둘렀다는 것.

○...경찰관계자는 "A씨와 B씨 모두 술을 마신 상태라 추후 정확한 진술을 확보해 사건 경위를 파악할 예정"이라고 설명.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815
한국 금융의 힘
신협 815 해방 대출

3.1%~8.15% 금리로 대한민국 서민을 고리사채로부터 지키겠습니다

각종 불법, 탈법, 고금리로 빌린 무서운 고리채, 그로 인해 고통받는 서민과 소상공인을 신협이 해방시켜 드립니다. 순수 국내자본 신협이, 대한민국 서민을 평생 든든히 지키겠습니다

광주문화신협 ☎ 1644-7990

한국 금융의 힘 신협 815 해방 대출

대한민국 민족자본 신협이 다시 한 번 시작합니다. 1960년대의 신협이 그러했듯, 오늘의 신협 역시 대한민국 서민을 고리사채로부터 지켜가겠습니다. 한국 금융의 힘, 신협이 평생 어부바 하겠습니다.

신협 815 해방 대출은 타 금융기관으로부터 고금리 대출을 받고 있거나 신규로 중금리대출을 받고자 하는 고객에게 지원하는 신협의 대표적인 중금리 신용대출 상품입니다.

대상자 신협 내부심사기준(신용등급 등)을 충족하는 고객 중 ① 타 금융기관으로부터 고금리의 신용대출을 3개월 이상 받고 있는 고객 또는 ② 신규로 중금리대출을 받고자 하는 고객

대출기간 최대 5년 (기한연장 포함)
상환방식 만기일시상환 또는 매월 원금(일부) 균등분할상환 또는 원리금균등분할상환
※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대출한도 최대 1,000만원 이내
대출금리 연 3.1%~8.15% 이내 (고정금리)
필요서류 재직증명서, 소득증빙서류, 기타 필요 서류

문흥지점 266-4150 | 양산지점 573-4150 | 운암지점 528-4150 | 운암산지점 513-4150 | 매곡지점 572-4150 | 청단지점 576-4150